

제1장 요한계시록 이해(1)

현대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은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징과 환상으로 기록되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네요. 무슨 공포영화처럼 끔찍한 내용들이 너무 무섭고 떨리고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천년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게다가 144,000,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런 숫자의 의미도 너무 어렵네요.”

그렇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 이야기들과 숫자들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상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단의 그릇된 해석에 미혹되기 쉽다. 그러나 만약 그 상징적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어느 성경보다도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이다. 묵시는 많은 상징과 환상을 포함한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와 교훈을 표현함에 있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스가라서에 나타난 여러 상징과 이상을 인용하여 기록되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의 의미를 안다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책이 아니라, 매우 이해하기 쉬운 그림책이 되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는 것은 이 책의 제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계시는 ‘메시지를 감추기보다 분명히 드러낸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힘든 퍼즐이나 어떤 내용을 감추기 위한 신비스러운 책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교회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한 책인 것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왜 그토록 공포스러울까?

아마도 ‘일곱 인 심판’이나 ‘일곱 나팔 심판’이나, ‘일곱 대접 심판’ 같은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들 심판은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환상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재앙 심판으로 인해 나라 간의 전쟁으로, 나라 안의 백성들 간의 싸움과 전쟁으로, 기근과 각종 전염병으로, 그리고 자연재해로 지상의 사람들이 심한 고통과 죽음을 맛보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재앙 심판은 성도들에게 무서움이나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즉 이 재앙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내리는 재앙인 것을 알아야 한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과 같다 할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을 보면서 과연 누가 떨며 두려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며, 다만 애굽의 사람들만이 그 열 재앙으로 두려워하며 떨었을 것이다.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며, 늘 기뻐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진 말씀이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로마의 황제숭배 강요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미혹하므로써 많은 성도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따라 바른 신앙에서 떠나 살고 있었으며, 풍요로움과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의 정신과 삶이 교회를 유혹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교사회를 추구하고 타협하며 살고 있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 당시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 교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책망과 칭찬과 권면을 하심으로써 그 당시 성도들로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미혹에 대항하여 믿음에 굳게 서도록 촉구하시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교회의 승리는 이미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확보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인해 사단과 그의 집행자들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상기시키셨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모든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핍박과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가져다주는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멀리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게 요한계시록을 임의로 잘못 해석하여 가르쳐 왔다. 이러한 결과로,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이 혹 이단으로 오해받을까 염려하여 이 책을 멀리하여 왔다. 그러하기에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에 전념해야 한다. 이는 모든 성도들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의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해하는 관점과 해석이 서로 달라진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분된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계1:19)로 명하셨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대부분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이미 경험한 일을 말하며, “이제 있는 일”은 당시 교회들의 현상황을 표현한 말이며, “장차 될 일”은 앞으로 교회와 세상이 겪게 될 장래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일곱 교회(1-3장)와 “장차 될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일곱 개의 환상 즉 일곱 인(4-7장), 일곱 나팔(8-11장), 일곱 상징적 인물(12-14장), 일곱 대접(15-16장), 일곱 메시지(17-18장), 사단의 멸망(18-20장), 새 예루살렘(21-22장) 환상으로 구분된다. 이때 “장차 될 일”에 말하고 있는 일곱 개의 환상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었다.

‘일곱 교회’와 마지막 환상 ‘새 예루살렘’의 주제는 교회이다. ‘일곱 교회’가 지상적 교회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 예루살렘’은 천상적 교회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과 미혹과 유혹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완전히 승리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을 교훈한다.

‘일곱 상징적 인물 환상’은 교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역자들, 그리고 세상을 조정하고 지배하는 사단과 그 동역자들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였다.

나머지 다섯 개의 심판 환상은 사단에게 통제되어 살아가는 세상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였다. 이들 심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불의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각종 재앙을 받게 되며, 종말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일곱 개의 환상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로 하여금 교회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총체적인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시리즈는 각각 일곱 개의 재앙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곱’이라는 숫자에 국한되어 소개하는 일곱 환상과 일곱 재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곱 교회’를 통해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명하셨다(1:11). 여기에서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시리즈와 ‘일곱 메시지’와 ‘사단의 멸망’ 환상은 모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살고 있는 불의한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관점에서 다룬 동일한 내용이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이 보여주는 재앙 대상과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일곱 나팔 심판	재앙 대상과 내용	일곱 대접 심판
첫째 나팔(8:7)	땅/우박과 불	첫째 대접(16:2)
둘째 나팔(8:8)	바다/피	둘째 대접(16:3)
셋째 나팔(8:10)	강과 물샘/쓴 물	셋째 대접(16:4)
넷째 나팔(8:12)	해, 달, 별/흑암	넷째 대접(16:8)
다섯째 나팔(9:3)	메뚜기/ 큰 고통	다섯째 대접(16:10)
여섯째 나팔(9:14)	네브라데/전쟁	여섯째 대접(16:12)
일곱째 나팔(9:15)	세상, 교회/종말	일곱째 대접(16:17)

도표가 보여주듯이, 일곱 나팔과 대접 심판의 재앙 대상과 내용은 같다.

이는 “장차 될 일”을 말하고 있는 일곱 개의 환상 또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동일한 내용임을 암시해 준다. 이에 대한 한 증거로, 일곱 개의 환상 모두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인해 불의한 세상은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영원한 부활을 하여 천상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곱 인 -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7:9)

일곱 나팔 -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11:12)

일곱 상징적 인물 -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14:1)

일곱 대접 -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16:19-20)

일곱 메시지 -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19:20)

사단의 멸망 -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20:9-10)

새 예루살렘 -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21:1, 22:5)

이러한 증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들이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사건들을 묘사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준다. 오히려 연대기적이 아니라, 주제적이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환상 가운데 하나의 환상만 가지고도 현재와 미래의 교회와 세상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